

주민들 생생한 목소리 직접 듣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운영 경로당·송정역·공원 등서 진행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후 첫 결례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운영안에 서명하고, 경청과 소통을 민선 8기 광산구청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구청장이 약속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취임 후 5개월째인 현재까지 주 2회 운영하는 방법으로 37회차 실시되고 있다.

박 구청장의 소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장소 선정도 크게 구애받지 않은 채 5일 시장을 비롯한 경로당, 송정역, 농협 하나로마트, 황룡공원 등 광산구 관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은 주민 왕래가 빈번한 노상에 조그마한 현수막을 걸어놓고 3명이 각각 마주 보면서 앉을 수 있는 책상 하나를 펼쳐놓은 것이 전부일 정도로 소박하다.

지난 21일에도 선운지구 모아엘가 아파트 옆 사거리에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이 운영됐는데, 주민들은 박 구청장에게 다양한 건의사항 등 동네 민원을 쏟아냈다.

그동안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통해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 등 민원만 346건에 이른다.

정책제안 42건(12%), 각종 생활민원 304건(88%)이었으며, 해당 민원을 실국과별로 나눠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21일 선운지구 모아엘가 아파트 인근에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마련하고,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경청하고 있다.

128건은 처리완료했다. 또 20건 대안처리, 71건 추진중, 48건 검토 중, 35건 타 기관 이첩 처리했다.

광산구는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고 별도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내용을 알리는 방법으로 주민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다.

광산구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의 효율적

인 운영 등을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8일간 홈페이지 등에서 주민 23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7.2%가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무투표로 당선되다 보니 주민을 직접 접할 수 없는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의 생활 현장을 방문해 행정과 주민 사이에 많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따뜻한 겨울나기... 돌봄이웃에게 김장김치 후원”

수완동 사회단체 연합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광산구 수완동은 지난 24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11개 사회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2,500kg)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수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에서 주관하고 수완동사회단체협의회에서 후원했으며, 투계더광산나눔문화재단의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회단체연합회들은 김장 담그기, 재료 나르기, 김치통 정리, 점심식사 지원 등 각각 역할

을 분담해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마련한 김장김치(박스당 9kg)는 통장단, 안부살림 봉사단인 복지 매니저에서 돌봄이웃 280세대를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김근호 수완동장은 “사회단체가 연합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한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한 시민 100인의 얼굴”

광산구 첨단 ‘시너지타워’ 초상권 기부 캠페인 눈길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내 한 기업이 시민의 초상권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금을 전하는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주식회사 시너지타워(대표이사 정정원)는 최근 광주시민 100명과 함께 도시경관 조성 및 사회공헌 취지를 담은 ‘광주시민 초상권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

첨단지구 상권 내 공사장 울타리에 광주시민 100명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뤄진 ‘포토아트월’을 설치하고, 1인당 5만원의 사진 초상권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캠페인이다.

시너지타워는 이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 500만원을 최근 투계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지정기탁했다. 시민의 참여로 적립된 500만원의 기부금은 동절기를 맞아 돌봄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시너지타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도심 속 흉물로 여겨지던 건설 현장을 예술 전시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더불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경제특구 추진 위한 특별위원회 만들자”

공병철 광산구의원,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서 제안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지난 25일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와 발전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 성장 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특구 구현을 위한 구성요소, 실현 방안 등과 관련해 노사민정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발제, 공병철 광산구의원, 윤종호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 윤영현 광주 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 의원은 포럼에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일자리카까지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불러온 경기 침체로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경제특구를 위한 일터혁신, 임금·복지체계 개혁, 사회적 대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 등의 입법활동과 더불어 광산구의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 의원은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맡아 광산구의 경제 산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산구의회는 지난 29일부터 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됐는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은 12월 1일까지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서류 감사를 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구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는다. 또 6일에는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강평을 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7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해 사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의원들과 함께 위법·부당한 행정이 있다면 엄중하게 지적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하며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